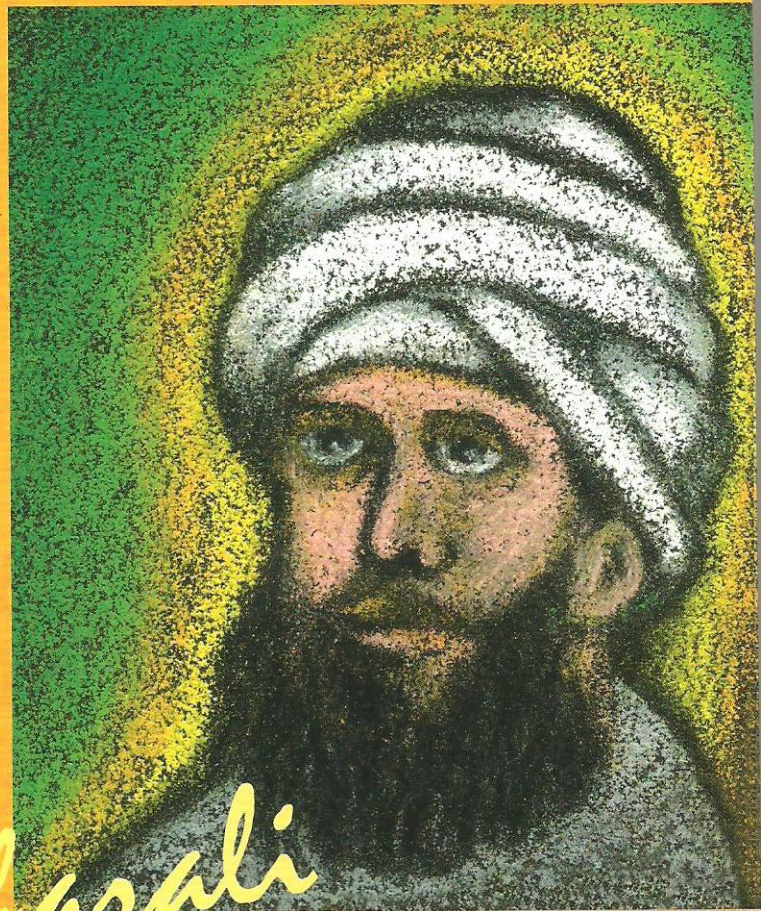


하나님을 찾는 무슬림 구도자

사무엘 켄웨머(Samuel M. Zwemer) 김요한·전병희 옮김



Al
Ghazali

11 세기의 이슬람 신학자인 알가잘리의 생애와 가르침

도서출판 인사이드스

이 책은
알가잘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경험한 어떤 국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글이 마쳐질 때쯤이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리이신 자신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주님이 되시는 부요한
분이심을 더욱 믿게 될 것이다.

- 랜들 헤리스 박사 -

<http://www.insiders.or.kr>



서 문

그 유명한 아랍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삶을 영어로 기록한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의 시대 이후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알-가잘리(Al-Ghazali)의 대중적 전기는 없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조차도 단지 미미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던컨 맥도널드(Duncan B. Macdonald) 교수는 지금은 절판된 “미국동양학회지(Th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제 12호에 발표된 논문에서 알-가잘리의 경험 및 영향에 특히 관심을 두고 그의 삶을 조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학자적인 조사 및 결론들은 알-가잘리의 생활환경이나 사건들 보다는 내면의 경험과 철학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그의 논문에 큰 빛을 쬔는데, 그가 참조한 10권에 이르는 “이타프 아싸아다(Ithaf assa'adi)”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 가운데 들어 있는 사이드 무르타다(Sayyid Murtadha)의 이흐야 주석(the Commentary on the Ihya)을 소개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알-가잘리에 대하여 기록한 그 밖의 자료들과 이 책 부록의 문헌목록에 언급된 다른 책들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맥도널드가 언급은 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무르타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앗수브끼(As-Subki)의 “타바قات 아쉬-샤파이야(Tabaqat ash-shafai'ya)”라는 책이 그것이다.

알-가잘리의 생애와 저술을 연구하게 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하여 고강도의 더욱 강력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슬람을 더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마치 잘랄-우딘(Jalal-uddin)이 말하는 바와 같다:

“어리석은 자들은 진짜처럼 보인다고 가짜 주화들을 산다. 만일 조폐국에서 발행한 진짜 주화가 없다면 누가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킬 것인가? 거짓이란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고서는 그저 미심쩍어 보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독이라도 거

기에 실패를 넣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입에 가져가려 할 것이다. 모든 신앙고백
들이 헛되다고 누가 외칠 수 있겠는가? 그럴듯한 진리의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다.”

알·가잘리에게는 우리가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할 수 있는 스승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 보인다. 그의 책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였다.

이슬람은 비기독교 종교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스마엘이라는 잃어버린 아들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자의 비
유로 하셨던 어디에서 그 비고를 찾을 수 없는 말씀, 즉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
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말삼
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과연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어느 누구도 알·가잘리의 인생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었지만 여전히 저만치 서있고, 그토록 들어가기를 소망하였
지만 여전히 그 입구를 더듬고 있는 그를 볼 때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
사를 만날 수만 있었더라면 하는 강렬한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랬
더라면, 무슬림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이 챔피언이 자신의 시대와 여러 세대에 기
독교의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알·가잘리를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이슬람
이라고 하는 어명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최소한 준비할 수 있을 것이
다.

S. M. Z.

이집트 카이로에서